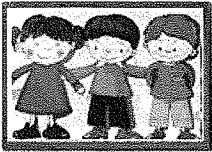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 작자미상 -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지만 너를 대신해 인생을 살아 줄 수는 없다
너를 교육시켜 줄 수는 있지만 배우는 일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네 곁에서 이끌어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할 수는 있지만
네가 행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의 것이다.
너에게 좋은 옷을 사 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사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충고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네 몫이다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네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할 수는 없다.
너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술의 장단점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술을 거절해야 할 때를 아는 건 너의 몫이다.
너에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지 말할 수는 있지만
너의 목표를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다.
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줄 수는 있지만 너의 행동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친절의 미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관대함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너에게 인생의 실제적인 진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너의 이름과 명성을 대신 세울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지 말할 수는 있지만
너의 목표를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세상의 험악함과 죄에 대한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그뎌 그랬지▶ 처음의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라면을 내어 놓았던 1963년, 그때 라면 값은 단돈 10원. 이후 1970년에 2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장면 500원, 곰탕 1200원, 냉면 1300원이던 1981년에 드디어 라면도 100원이 되었습니다.
봉지안에서 부스르트러 스프를 쏟아 흔들며 먹던 생라면은 또 하나의 훌륭한 간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 것이 황홀하기만 했던 시절, 그 행복을 다시 맛볼 수 없기에 그때가 더욱 그립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46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11월16일
☎520-9464.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천국의 식품점



아주 오래 전 나는 인생의 행로를 거닐다 "천국 식품점"이란 간판을 보았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문은 활짝 열려 있더군요. 한 천사가 바구니를 건네주며
"필요한 것 잘 보고 사렴!"

우선 나는 약간의 인내를 담았습니다. 사랑이 같은 줄에 있더군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해가 있었는데 사실 이해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나는 한두 봉지의 지혜와 믿음을 담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 곳에 많이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도와주는 힘과 용기를 담았습니다.

벌써 바구니가 가득 차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는 약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구원을 빼놓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구원은 놀랍게도 공짜였으니까요.

이제 나는 내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값을 지불하려고 판매원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기도를 발견한 나는 그것을 집어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곧 죄의 길로 달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아주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일 마지막 칸에 있더군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노래와 찬양이 걸려있기에 그것들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에게 물었지요.

"이거 모두 합쳐서 얼마지요?"
그러자 천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오래 전에 이미 지불하셨단다. ! 어디를 가든지 좋으니 그냥 가지고 가렴!"

엄마가 딸에게
등산을 하거라
정상에 오르면 너를
엮어매고 있는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생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면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

주 일 예배

* 표에 있어서 기이려면 문은 앞으셔서 드려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봉화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송
Hymn

*성서공독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Choir

현관
Sermon

찬송
Hymn

원금기도
Offering Pray

응답송
Response Song

축도
Benediction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리라

30장

26 (시편 104편)

사도신경

"Calvary"

340장

209장

(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1월의 예배위원◆

원자	주일기도	원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	지찬영	고성원	김원수, 김홍구	
9	최재학	권용원	권정호, 강원정	박영민, 박성
16	김교섭	김영숙	정종원, 이선애	박영민, 박성
23	김수자	김정원	박태원, 서동원	
30	김종건	김동숙	양경배, 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母的 기도하는 자녀

부의 할 평 해어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전교장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과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를 판권이 있습니다

1. 교우소식

<양문후 귀국> 민영구, 조미애 전사
<다시 열게되여> 강사합니다 <고대원> 권사(이규임 권사 모친)

<수상기별 UN 방문> 최선영(최재학 전사, 노은숙 권사 딸), UN에 주최한 '세계 노년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UN총회 연합회 건학 위해 중국(12월) <소원> 이광희 장로 부친(이규임 권사 시부), 강자스런 부흥 소식에 중국(20일)

*하나오이던 불로에만 해도 관중이었던 부친의 강자스런 소원, 그리고 보모 자식의 이별은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에게 하물어져 내려오는 듯한 아픔인가 봅니다.

2. 오를 람송: 방지원 목사님(영음포교회 원로목사), *선교대회강사로 오신 원에 저희 교회에서 람송 전해주시셔 강사드립니다.

3. 추수감사주일, 다음주일을 한 해 동안 자식농사, 사업농사, 직장농사, 건강농사 그리고 믿음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벌써 한해가 되었습니다. 오를 "식사전교주일" *수복하 양자간 나를 축사 비바, 서서 애기 나누며 먹던 주일이 한두 주일 전 람은 데 벌써 한달 전 이어지가 되었습니다. 여과교우들의 준비를 생각하면 안쓰럽지만 *오를 청거지는 청년부에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뉴랜드드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연합 부흥회(강변리, 로드리, 세노래, 색아람은, 성경인교회, 영락, 오성, 오를랜드한인, 공누리, 은혜와진리리, 임마누엘, 주님의교회)

*17일(월)-19일(수) 저녁 7:30 <장소> 임마누엘교회 <강사> 박희민 목사(LA 은락교회) 6.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연합부흥회를 드립니다.

이만주는 주일과 수요일에 배 람송주일에 자유로워진 주일이 되었습니다. 7. 다음주 일 남산교회 공동: 은혜와진리교회와 축구시합(오후 3시)

*1남: 1일(김중원), 2남: 2일(A팀: 이재영, B팀: 원성호), 강독: 박영원

▶작한 시인들▶ 꼭 오는 날

-이제하-

생각나니? 생각나니?

오래오래 생각해

내 물의 속이지

잔칫집에다 불고 그 날

봄바들처럼 불던 10월

생각나니? 다 생각나니?

주었습니다. 서을 유학 간 큰 아들 등복근으로, 람원친 만 람 시집보내려 잔치비용으로, 람원력 가던 구슬포고 선한 눈망울, 람아버지 람 건 앞에 람랑이던 황소 목 망울소리, 람 먹이려 들관으로 끌고 가 람 단 막내에게조차 순하디 순하게 끌려 가던 우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